

주제별 성평등 교육 수업 활용가이드

‘교육·학교’ 편



I. [교육·학교] 주제, 성평등하게 수업하기

학교는 아이들이 가정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자 대표적인 사회화 기관이다. 학교 생활 규범, 수업 활동, 학생들 간 또래문화, 학교 내 차별과 폭력 등 학교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학생들의 행동 판단 기준과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남자 한 줄, 여자 한 줄!”, “남자는 축구, 여자는 피구!”.....

누구나 한 번쯤 학창 시절에 들어보았을 것이다. 성별에 따른 줄서기, 짝 또는 모둠 구성, 학용품 색상, 체육활동 등 전반적인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개성과 흥미를 존중받기 보다는 성별이라는 집단으로 묶이는 경험을 한다.

이와 같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별 분리는 성별고정관념을 고착화시키고 성별 대립을 심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그 결과는 아이들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교실 속에서 성별 분리의 모호한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이 소외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교실에서의 이러한 경험은 사회의 또 다른 차별과 소외의 재생산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학교 현장과 교육활동 속에서 나타나는 성별고정관념을 허물고 개개인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여성/남성으로 구분 짓는 성별 이분법적 생활 양식에서 **성평등한 학급 운영 방식**으로, **각자의 개성과 정체성을 존중하는 수업**으로, 성별화 된 관계 중심의 또래문화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한 또래문화**로의 변화를 통해 학생들의 성평등 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또한 성별에 상관없이 개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진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 틀에서 벗어나 주체성과 정체성을 잃지 않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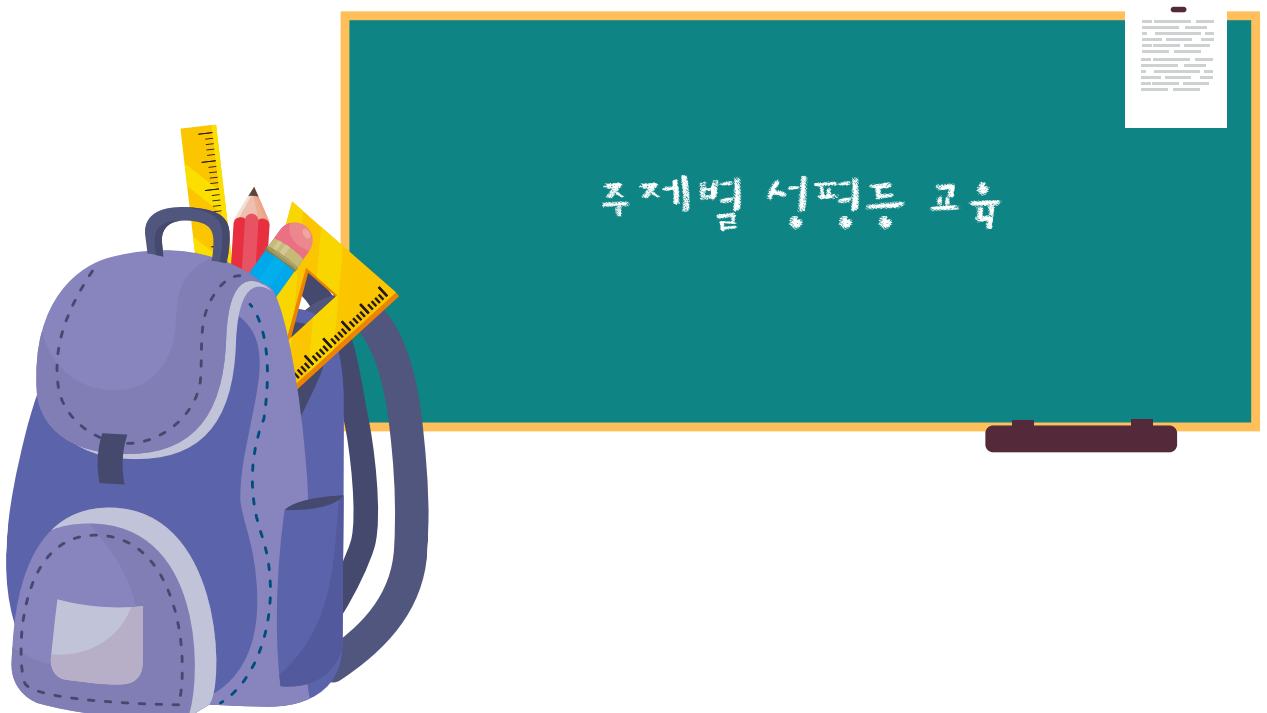
세부 주제

- **또래문화** : 성별화 된 관계 맺기 방식에 대한 성찰,
나와 상대방을 모두 존중하는 친구 관계 맺기/의사소통 방법,
학용품 등에서 드러나는 성 고정관념,
외모평가/혐오표현이 없는 대안적 문화 만들기 등
- **진로교육** : 교과목/진로/직업 등에서의 성 고정관념 벗어나기, 다양한 롤모델 제시 등
- **학급운영** : 성평등한 학급 운영/생활 지도, 성평등한 학교 문화 조성하기 등



교사의 check-point!

- **또래문화** : 여학생들의 따돌림 또는 남학생들의 서열문화와 같은 성별화 된 관계를 특징적으로 지도하기보다 학급 내 교우 관계와 갈등 상황을 고려한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도록 한다.
- **진로교육** : 성별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는 다양한 인물과 직업을 학생들에게 충분히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직업에 관해 가지고 있던 성 고정관념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한다.
- **학급운영** : 성평등한 학급 운영과 학교 문화 조성은 교사로부터 시작된다.
매 순간 교사가 하는 말 한 마디, 행동 하나가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
성평등 교육을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교사는 교육활동을 진행하며 자신도 모르게 성 고정관념이 들어간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II. 수업소개 및 콘텐츠 활용팁

1. [또래문화] 클로에와 스파이더맨 가방

수업 개요

활동1	클로에, 무슨 일이야?
활동2	클로에, 나도 그랬어
활동3	클로에, 힘을 내!
다짐하기	나라면 어떻게 할 건가요?

클로에, 무슨 일이야?

다른 애가 날 놀린 상황 → 속상한 마음

"나만 착해요" 인물의 말 → 실망한 마음

클로에, 나도 그랬어

클로에와 비슷한 경험을 겪은 적이 있나요?

너는 여자니까... 너는 남자니까...

나의 마음

클로에, 힘을 내!

클로에를 위로하는 **착한 댓글**을 써봅시다

착한 댓글이란?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해요.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 위로해요.

나라면 어떻게 할 건가요?

- 여자, 남자가 아닌 그 친구 그대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요.
- 여자인건, 남자인건 우리는 노력하면 뉘튼지 할 수 있죠!
- 성별에 따라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나누지 않아요.
- 우리는 모두 소중한 사람이예요. 다른 사람을 놀리지 않아요.

I 수업 대상 및 권장 차시 : 초등 저학년, 2차시(80분)

I 수업 필요성

이야기 속 인물을 통해 여자와 남자라는 성별에서 벗어나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성별을 떠나 그 사람 그대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이 수업의 지향점이다.



이럴 때 활용해요!

- 학생들이 성별에 따라 사용하는 학용품 색깔이나 종류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등
- (예) 분홍, 노란색 가방을 가지고 온 남학생을 '여자 같다'고 놀리는 경우
- (예) 미니 빗자루에도 남자용/여자용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I 수업 내용

●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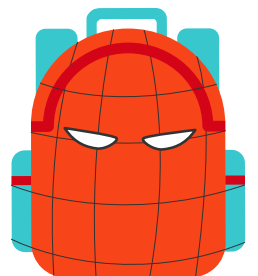
- 책 속 인물의 마음에 공감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 활동

도입	자신과 다른 친구들의 책가방 모양과 색을 비교하고 성별에 따라 책가방의 모양과 색이 다른 이유 예상하기
활동1	‘스파이더맨 가방을 멘 아이’ 책을 읽으며 인물의 말과 행동에서 인물의 마음 찾기
활동2	책 속 인물 ‘클로에’와 비슷한 경험 떠올리기 (남자라서, 여자라서 놀림을 받거나 하면 안된다고 했던 경험 공유하기)
생각해보기	남녀를 떠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활동3	‘클로에’의 마음을 위로하는 댓글 쓰고 스파이더맨 가방 꾸며주기
다짐하기	내가 클로에 또는 클로에의 친구라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 것인지 발표하고 다짐하기

● 유의사항

- 이야기의 내용을 확인하는 활동을 진행할 때 학생들이 지식 위주의 대답을 하는가에 중점을 두기보다 인물의 마음에 공감하는지와 함께 이야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생각해 보는 방향으로 활동을 진행한다.
- 남자라서, 여자라서 겪었던 성차별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고정된 성역할 및 성고정관념이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속상함과 불편함을 준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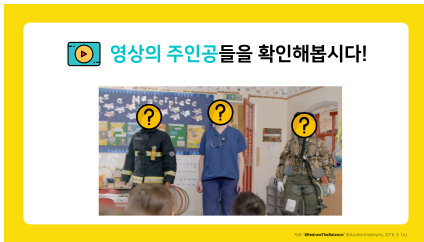
2. [진로교육] 미래의 나



수업 개요

- 활동1** 에이다는 어떤 모습일까요?
- 과학자 에이다의 대단한 말뚱
- 활동2** 나는 무엇이든 될 수 있어!
- 활동3** 나의 꿈 액자를 만들어요

[활동1] 에이다는 어떤 모습일까요?



[활동2] 나는 무엇이든 될 수 있어!

여자 직업? 하는 일?

남자 직업? 하는 일?

성별에 따라 할 수 있는 직업이 있다? 없다!

[활동3] 나의 꿈 액자를 만들어요

[활동방법]

- 활동지에 미래의 내 모습 그리기
- 나의 이름과 꿈 쓰기
- 색종이로 막대기 4개를 만들기
- 활동지 주변에 막대기 4개를 돌로 붙여 두르고, 튀어나온 부분은 가위로 자르기
- '나의 꿈 액자 완성'

| 수업 대상 및 권장 차시 : 초등 저학년, 1차시(40분)

| 수업 필요성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 사회, 미디어에 의해 고정된 성역할을 무비판적으로 습득하게 된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아이들에게 좁은 선택의 폭에서 꿈을 꾸도록 강요한다. 학생들이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더 넓고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직업에 대한 열린 자세를 가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이 수업이 필요하다.



이럴 때 활용해요!

학생들이 성별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우 등

(예) 소방관, 비행기 조종사는 보통 남자의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예)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그림을 더 잘 그린다고 생각하는 경우

I 수업 내용

●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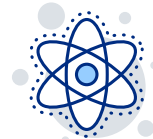
-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에 집중하며 나의 꿈을 정하고 발표할 수 있다.

● 활동

활동1	'과학자 에이다의 대단한 말썽'을 읽으며 주인공의 모습 상상하여 그리기
생각해보기	에이다와 사진 속 인물(소방관, 의사, 비행기조종사)이 여자일지, 남자일지 생각해보면서 평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별고정관념 확인하기
활동2	성별에 따른 직업의 제한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떠올리며 미래의 나의 모습 상상하기
활동3	내가 미래에 되고 싶은 모습을 생각하며 꿈 액자 만들기
마음나누기	본인의 꿈을 발표하는 활동을 통해 공언하는 시간 가지기

● 유의사항

- 1학년의 경우, 입학초기적응활동 기간에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과 더불어 활용 가능하다.
- 꿈 액자 만들기 활동을 진행할 때, 한글부진학생의 경우에는 자신의 꿈을 그림으로만 표현하거나 교사의 도움을 통해 글을 간단하게 쓰도록 하는 등 학생 수준에 따라 융통성을 가지고 해당 활동을 진행한다.
- 아이들이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의 성별을 맞추는 퀴즈를 풀 때 정답을 맞히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학생들이 직업에 대해 가지고 있던 성별 고정관념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3. [진로교육] 나는 무엇이든 될 수 있어!

과학·진로교육

나는 무엇이든 될 수 있어!

수업 개요

- 활동 1 터치펜 만들기
- 활동 2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 준 발명품들
- 활동 3 나도 발명가가 될 수 있다!

활동 1 터치펜을 내가 직접 만들 수 있다고?

실험자료

별대, 은박 비닐, 얇은 비닐, 화장솜, 면봉, 램, 가위, 스퀴치 테이프, 양면 테이프, 장식용 테이프

활동 2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 준 발명품들 - 자동차 와이퍼

자동차 와이퍼 발명한 사람 나야 나!

발명 과정

1900년대 초, 뉴욕을 여행하던 중 친는 택시가 시야를 가려 운전의 어려움을 겪는 운전자들을 보았어요. 빗자루에서 영감을 얻은 마리 앤더슨은 자동차 와이퍼의 시도가 되는 수동형 자정장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름을 아는 과학자는 누구죠?
아인슈타인, 뉴턴, 에디슨, 마리 퀴리...

오늘 알게 된 발명가들은,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이었나요?

활동 3 나도 발명가가 될 수 있다!

여러분도 위대한 발명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작은 불편함을 찾아봅시다!

Ⅰ 수업 대상 및 권장 차시 : 초등 고학년, 2차시 (80분)

Ⅰ 수업 필요성

아이들에게 알고 있는 과학자를 말해보라고 한다면 아인슈타인, 뉴턴과 같이 위대한 발명을 한 남성 과학자를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발명은 일상의 사소한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는 행동으로부터 시작되며, 과거와 현재에도 많은 여성 과학자들이 존재한다.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발명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며, 성별을 떠나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럴 때 활용해요!

- 과학과 발명은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이며, 위대한 과학자는 대부분 남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등
- (예) 발명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아이디어나 창의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 (예)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과학을 더 잘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I 수업 내용

●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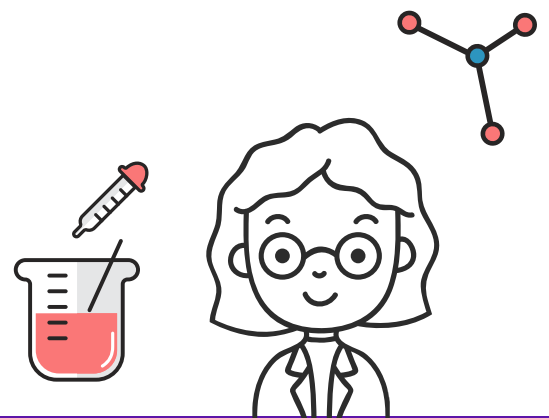
-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발명가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 활동


활동1	터치펜의 원리를 이해하며 터치펜 만들기 (재료: 빨대, 은박 비닐, 얇은 비닐, 화장솜, 면봉, 칼, 가위, 스킨케어 테이프, 양면 테이프, 장식용 테이프)
활동2	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다양한 발명품과 발명품을 만든 과학자 알아보기 (발명품을 만든 과학자들을 알아보면서 성별 고정관념 확인하기)
활동3	성별과 상관없이 누구나 과학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일상 속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 찾기
마무리	영상 시청을 통해 과학자, 발명가에 대한 외국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보고 과학은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 유의사항

- 과학 교과수업과 연계한 진로교육으로 활용 가능하며,
실험 활동이 포함된 수업으로 사전 실험 진행 및 실험도구를 충분히 준비하도록 한다.
- 잘 알려지지 않은 과학자와 발명품을 소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발문이 이루어져야 한다.
- 기존에 알려진 남성 과학자와 새로 알게 된 여성 과학자들을 비교하며
여성 과학자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한다.



4. [또래문화] 외모 평가 멈추기



**외모 평가
멈추기**

수업 개요

활동1 현상 알기: 날려날려 비행기
활동2 원인 알기: 그것이 알고 싶다
활동3 해결하기: 외모, 왜? 뭐!
실천하기 우리 반만의 신호 만들기

[활동1] 날려날려 비행기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인 적 있나요?

우리 ○○이 키 얼마나 컸나?
어디 △△랑 한 번 비교하자!

나 얼굴 최소 ○○○
왜 저렇게 생겼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활동2] 그것이 알고 싶다

✔ **미디어에서 자주 외모에 대해 평가하다 보면**

- 일상에서도 외모를 평가하는 분위기가 생겨나요.
- 스스로도 부족한 점을 자주 보고 자신을 미워하게 되기도 하죠.

✔ **외모는 칭찬 역시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 (말라서 스트레스인데) 너 날씬해서 좋겠다.
- (동생인 친구에게) 형이 너보다 잘 생겼네? 키 크네?
- (우리 반 아이들 앞에서) 6반에서 ○○가 제일 예쁨.

[활동3] 외모, 왜? 뭐!


다 같이 하지 않으면 제일 좋지만,
주변에서, 나조차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외모 평가를 접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 ● ● ● ●

**당사자일 때 / 지켜보는 주변 사람일 때로 나누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둠끼리 협의 후 발표해 봅시다.**

[실천하기] 우리 반만의 신호 만들기

외모 평가의 나쁜 영향에 대해 공부하긴 했지만,
우리에게도 습관이 된 외모 평가!
만약 교실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I 수업 대상 및 권장 차시 : 초등 고학년, 1차시(40분)

I 수업 필요성

가정, 학교, 사회 등 어디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서로에게 인사말을 하듯 외모 평가를 하는 말을 수없이 건넨다. 이번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외모에 대한 놀림이나 비난뿐만 아니라 외모에 대한 칭찬도 외모에 대한 우열을 가리는 말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또한, 외모 평가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아보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외모 평가로부터 각자의 자존감을 잃지 않고 다양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럴 때 활용해요!

- 학생들이 무의식적으로 외모 평가를 하는 경우
 - 학생들이 외모 평가로 인해 상처받거나 외모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경우 등
- (예) “(키가 커서 스트레스인데) 너 키가 커서 좋겠다.”와 같이 외모를 칭찬하는 말도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
- (예) 학급 내에서 누군가가 나의 외모를 평가하는 말을 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I 수업 내용

● 목표

- 외모에 대한 평가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을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

● 활동

동기유발	하얀 거짓말 놀이(선생님이 들어보지 않은 말 찾아보기)를 통해 외모 평가가 빈번히 일어난다는 것을 인지하기
활동1	직접 경험한 외모평가 사례를 서로 공유하며 자신의 말과 행동 되돌아보기
활동2	외모를 평가하는 이유와 미디어가 외모 평가에 미치는 영향 살펴보기
활동3	외모 평가에 대응하는 방법 발표하기
실천하기	학급 내 외모 평가를 멈추기 위한 우리반 신호 만들기

● 유의사항

- 수업 시작 전, 외모 평가는 학생들의 자존감과 깊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활동을 할 때 장난스러운 반응을 보이지 않도록 사전 지도한다.
- 외모를 비난하는 것과 칭찬하는 것 모두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한다.
- 일상 속 외모 평가는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없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이 무의식적으로 행한 외모 평가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차분한 분위기에서 의견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한다.
- 외모 평가를 하는 말에 상처받기보다 아름다움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가고, 타인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봐주는 태도를 기르도록 학생들을 독려한다.

5. [또래문화] 갈등의 기술(1) :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

갈등의 기술(1)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

VS

수업 개요

- 활동 1 실제 상황! 나의 행동은?
- 활동 2 나의 마음, 너의 마음
- 생각해보기 좋은 싸움

[활동 1] 실제 상황! 나의 행동은?

☹️ <너무 화가나 필요할거야!> 분노(화)

☹️ <속상하긴 해... 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 서운함(슬픔)

☹️ <니한테 뭐 있었니? 너무 너무 불안해!> 걱정(불안)

내가 A에게 이런 일을 당했다면?

[활동 2] 나의 마음, 너의 마음

☹️ 분노(화) ☹️ 서운함 ☹️ 걱정(불안)

A모둠은 각 감정모듬의 말을 듣고 내가 쓴 마음을 발표해주세요.
감정모듬은 A모듬의 반응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생각해보기] 좋은 싸움

그렇다고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운함과 분노, 걱정과 불안은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 계속 쌓이고 또 쌓이다 ☹️ 전혀 상관없는 작은 일에 폭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갈등의 기술> 중 가장 중요한 필수기인
감정에 대해 알아보시다.

I 수업 대상 및 권장 차시 : 초등 고학년, 2차시(80분)

I 수업 필요성

‘자신의 감정을 참고 숨겨서 친구와의 싸움을 피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

학생들에게 있어 또래관계는 중요한 생활의 한 축이다.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다양하고 복잡한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갈등을 경험한다. 그러나 싸움 자체를 옳지 않다고 여기는 문화 속에서 학생들은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를 하기보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싸움을 피하는 것을 택한다.

이 수업은 또래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에서 나와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올바른 방식으로 표현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다룬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김 없이 표현해야만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럴 때 활용해요!

학생들의 잘못된 감정 표현 방식으로 학급 내 갈등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등

(예)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예) 상대방과의 갈등을 풀기 위한 대화를 하기보다 뒷담화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I 수업 내용

● 목표

-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역할극에 적용할 수 있다.

● 활동

활동1	같은 상황에 대해 각자의 입장에서 느낀 감정을 이야기하고 역할극을 통해 감정 표현 연습하기
활동2	역할극을 통해 서로가 느낀 감정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솔직하지 않은 감정 표현과 올바르지 않은 감정표현이 갈등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보기
생각해보기	좋은 싸움을 하기 위해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대화 연습하기
마무리	갈등 상황에서 솔직한 감정 표현의 중요성 설명하기

● 유의사항

- 슬픔, 기쁨, 화 등 다양한 감정 자체를 느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으나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폭력으로 표출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임을 지도한다.
- 담당 학급에서 자주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예시로 제시할 수 있다.
다만, 특정 학생의 이야기임을 추측할 수 있는 사례를 활용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동일한 문제 상황에 대해 비슷한 감정이나 반응을 느낀 친구들끼리 모둠을 구성하되,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친구가 없는 경우 1인 모둠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 내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만큼 상대방의 솔직한 감정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지도한다.



6. [또래문화] 갈등의 기술(2) : 다양한 감정의 의미

VS

수업 개요

- 활동 1 감정카드와 친해지기
- 활동 2 감정카드와 짝해지기
- 활동 3 가짜 감정 알아내기

[활동 1] 감정카드와 친해지기

내가 자주 쓰는 감정 단어 적어보기

- 내가 일주일 동안 써본 적이 있는 감정 단어를 최대한 많이 적어봅시다.
- 그 중 긍정적인 감정 단어와 부정적인 감정 단어를 분류해 숫자를 세어봅시다.
- 비속어도 허용하며, 제한시간은 1분입니다.

[활동 2] 감정카드와 짝해지기

[활동 3] 가짜 감정 알아내기

진짜 감정 찾아내기!

다음 문장에서 '생각'을 찾아보고, 그것을 '느낌'으로 바꿔봅시다

“친구를 때리는 건 올바르지 않다고 느껴져”

나의 생각: 올바르지 않다.
나의 느낌: 화가 난다. 겁이 난다. 등

다음 시간에는
나의 감정의 뿌리인 '육구'를 찾는 법을 배우고
내 감정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생각해보겠습니다.

I 수업 대상 및 권장 차시 : 초등 고학년, 2차시(80분)

I 수업 필요성

또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해결하는 기술로 나의 진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평소 자신이 사용하는 감정 표현 단어들을 살펴보고 감정카드를 활용하여 감정을 나타내는 다양한 단어들로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한다.
더 나아가 판단과 생각을 감정으로 착각한 가짜 감정과 진짜 감정을 구분하고 찾아보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갈등 상황에서 내가 느끼는 진짜 감정을 상대방에게 설명할 수 있다.



이럴 때 활용해요!

학생들이 갈등 상황 속에서 자신의 판단 또는 생각을 감정으로 오해해서 말하는 경우 등
(예) 친구에 대해 속상하고 화나는 감정을 “친구가 저를 따돌려요.”와 같이 표현하는 경우

I 수업 내용

● 목표

- 다양한 감정의 의미를 알고 나의 진짜 감정을 찾아 설명할 수 있다.

● 활동

활동1	감정카드를 활용하여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 다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고 각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을 찾아 이야기하기
활동2	특정 나이나 성별 고정관념에서 기인한 말이 나의 감정 표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감정 카드를 활용하여 감정 표현 연습하기
활동3	나의 생각과 판단에서 기인한 가짜 감정과 진짜 감정 구분하기
마무리	다양한 감정의 뿌리가 '욕구'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 유의사항

- 학생들이 평소 사용하는 비속어 대신 사용 가능한 감정 단어를 찾아보도록 한다. 이를 통해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인지하도록 지도한다.
- 사람이라면 누구나 슬픔, 화남,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며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보다 어떻게 감정을 표현하는지가 더 중요함을 설명한다.
- 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교실 내에 감정 카드를 비치하고 감정 카드를 활용한 게임을 주기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수업시간 외에도 학생들이 꾸준히 자신의 감정 표현을 연습할 기회를 제공한다.
- 감정카드를 활용하여 표정과 몸짓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활동을 진행하면서 교사는 학생들을 잘 관찰하여 다른 학생의 감정 표현을 듣고 부끄러워하거나 놀리는 행동이 없도록 지도한다.

7. [또래문화] 갈등의 기술(3) : 너와 나의 욕구 알기

갈등의 기술(3)
너와 나의 욕구 알기

VS

수업 개요

- 활동 1: 감정의 뿌리 찾기
- 활동 2: 욕구 탐정 되기
- 활동 3: 꼬리표는 거절! 욕구는 조절!

수업 마무리

[활동 1] 감정의 뿌리 찾기

친구가 놀기로 한 약속을 취소했다!

감정 1: 속상해요.

'난 친구와 재미있게 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약속을 취소해서 재미있게 못 놀게 되니까 너무 속상해요.'

속상함(감정)을 느끼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활동 2] 욕구 탐정 되기

장면 분석하기 (1)

네 성격이 나빠서
엄마랑 아빠는 마음이 아파...

네가 밥을 남기면
얼마나 걱정되는줄 아니?

- 이 말속에 담긴 상대방의 '감정'은 무엇인가요?
- 우리가 배운 '감정의 뿌리'를 생각하면 상대방이 감정을 느끼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 감정의 원인이 상대방의 욕구라는 것을 알아도 막상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활동 3] 꼬리표는 거절! 욕구는 조절!

다음 말 속에 숨겨진 꼬리표를 찾아봅시다.

- 여자가 원 힘아... 내가 던진 공 때문에 아파 죽겠다!
꼬리표 >> 여자애는 힘이 약한 게 당연하지.
- 아, 난 남자가 왜 게임을 안 하나?
꼬리표 >> 남자애는 게임을 좋아하는 게 당연해.
- 너는 ()살이나 먹어서는 이런 거 가지고 울고 그러니?
꼬리표 >> ()살쯤 되면 슬픔의 감정을 참아야 해.

[수업 마무리]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속에 숨겨진 꼬리표와 욕구를 찾는 연습을 한다면 상대방이 상처가 되는 말을 해도 감정이 상하는 대신 상대방의 욕구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내 욕구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원하는 것을 존중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지요.

| 수업 대상 및 권장 차시 : 초등 고학년, 2차시(80분)

| 수업 필요성

상대방이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했을 때, 그 감정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은 이번 수업을 통해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이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욕구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상대방의 욕구를 읽어내는 방법을 알고 나와 상대방의 욕구를 존중하는 대화를 연습해가는 과정을 거쳐 건강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이럴 때 활용해요!

-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 상대방의 말 속에 숨겨진 감정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등

(예) “공을 살살 던지면 좋겠어.”라는 말 대신 “여자애가 무슨 공을 이렇게 세게 던져?”라고 말하는 경우

I 수업 내용

● 목표

- 욕구가 감정의 원인임을 알고 상대의 욕구와 나의 욕구를 함께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 활동


활동1	각 문제 상황 속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의 원인 살펴보기 (나에게 어떤 욕구가 있는지에 따라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기)
활동2	욕구 탐정 게임을 통해 문제상황 속에 숨겨진 나와 상대방의 욕구 찾기
활동3	상대의 말 속에 숨겨진 나이와 성별에 대한 꼬리표 표현을 거절하고 서로의 욕구는 존중하는 대화 방법 적용하기
마무리	나와 상대방의 욕구를 찾아내고 조절하는 대화를 통해 건강한 또래 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 다짐하기

● 유의사항

- 감정적인 상황 속에서 상대방의 욕구를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다양한 감정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예시로 들어
각 상황에서 어떻게 상대방의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지 연습을 충분히 해보도록 한다.
- 욕구 탐정 게임을 진행하면서 대상 카드의 보호자 역할이
꼭 여성 보호자나 엄마일 필요는 없다고 안내한다.
- 사회적 권력 관계 속에서 상대적 약자(예: 어린이, 장애인, 여성 등)인 경우
행동에 대한 꼬리표가 더 많이 붙는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8. [학급운영] 성평등한 학급 한해살이 꿀팁



1. 출석번호를 꼭 남녀로 나누어야 할까요?

- “출석번호 남자 1번, 여자 41번?”
→ **우리 반만의 학급 번호 만들어 운영하기**
- “번호대로 남자 한 줄, 여자 한 줄!”
→ **자유롭게 두 줄 서기 해볼까요?**
- “이번엔 남자들이 읽어볼까? 여자애들보다 잘 읽나 보자.”
→ **이번엔 1분단이 읽어볼까요?**


4. 체육부장은 남학생, 환경부장은 여학생?

교실 속에서도 남자의 일, 여자의 일을 나누고 있지는 않았나요?

무거운 물건 옮길 때 남학생에게만 부탁하시나요?
학급게시판 꾸밀 때 여학생에게만 부탁하시나요?

5. ‘엄마께 내일까지 싸인 받아오세요~?’

엄마의 양육 부담은 당연하지 않아요.
다양한 가족 구성원을 인정해 주세요.



7. 학생기초조사서에도 작은 변화를

- 학기초에 쓰는 학생기초조사서 한 장으로도 학생들에게 다양성을 경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보다 포괄적인 ‘보호자, 양육자’ 등의 용어를 사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2. 유리아목

성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남학생	1	1	1	1	1	1	1	1	1	1	1	1
여학생	1	1	1	1	1	1	1	1	1	1	1	1
합계	2	2	2	2	2	2	2	2	2	2	2	2

10. 남교사는 짐꾼이 아니에요, 여교사는 꽃이 아니에요.

성평등한 학급 운영을 위해서는 성평등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짐 옮기게 남학생 5명 보내주세요.” → “짐 옮길 수 있는 학생 5명 보내주세요.”
- “장고 적상 옮기게 남교사 전원 모이세요.” → “선생님들 모여주세요.”
- “예쁘니까 빨린 거예요. 시상 보죠 부탁해요.” → [X]
- “김 선생, 화장 안 하면 애들이 안 좋아해.” →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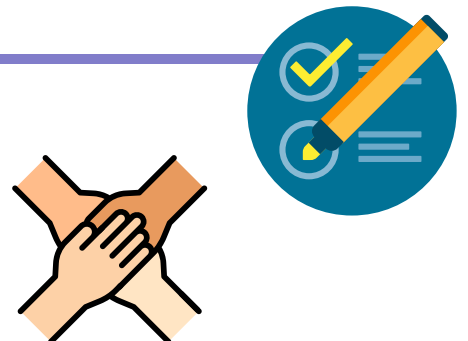
I 수업 필요성

성차별, 성별고정관념이 반영된 학교 문화를 찾아 없애고
교사·학생·양육자가 함께 성평등 문화를 만들어나감으로써
그 속에서 학생들은 남자다움, 여자다움을 버리고 나다움을 찾을 수 있다.



이럴 때 활용해요!

- 성별보다 학생들의 특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급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
- 성차별적 학교 문화에서 성평등한 학교 문화로의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경우 등
- (예) 성별에 따라 학생들의 체육, 예술 활동을 다르게 하는 경우
- (예) 학생의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학부모회 운영 및 양육자 상담을 하는 경우



I 수업 내용

● 목표

- 성평등한 학급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고 실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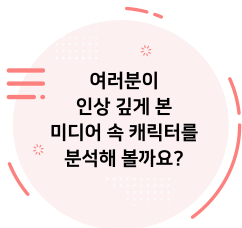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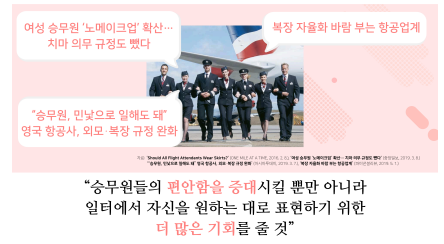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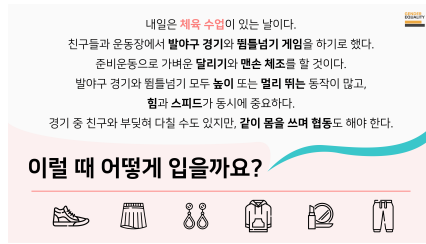
● 주요내용

1. 출석번호	남녀로 나눈 출석번호에서 벗어나 우리 반 또는 우리 학교만의 출석 번호 만들기
2. 학용품 색깔	여학생은 분홍색, 남학생은 하늘색에서 벗어나 다양한 색깔을 선택할 자유 주기
3. 학생특성	성별에 대한 언급을 줄이고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주목하기 (예: “남자인데 글씨를 잘 쓰네!” → “♡♡이는 글씨를 참 잘 쓰는구나!”)
4. 학급 내 역할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남학생, 학급게시판 꾸밀 때 여학생에게 부탁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역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기
5. 용어사용	‘엄마, 아빠’ → ‘보호자’, ‘녹색어머니회’ → ‘녹색교통봉사대’, ‘마미캡’ → ‘안전지킴이’
6. 학부모 상담	학생의 어머니 위주로 진행되었던 상담에서 아버지 상담, 보호자 상담으로 확대하기
7. 학생 기초조사서	‘부모님’ 대신 ‘보호자, 양육자’ 등의 용어 사용을 통한 다양한 가족 구성원 인정하기
8. 노력에 대한 칭찬	타고난 외모 대신 노력하는 행동과 태도에 대한 칭찬하기
9. 성평등 학급규칙	성별을 지운 학급안내판 제작 및 성평등 문화 형성을 위한 학급 규칙 만들기
10. 성평등 학교문화	성평등한 학급 운영을 위한 성평등한 학교 문화 만들기

● 유의사항

- 보호자 상담과 관련하여 1인 양육 가정이 있는 학급에서는 더욱 세심한 안내가 필요하다.
- 동료교사, 학생, 보호자와 성평등 문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여 공감대를 형성한 후, 함께 학급과 학교에서 유의미한 성평등 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9. [또래문화] 나를 위한 옷차림



Ⅰ 수업 대상 및 권장 차시 : 초등 고학년, 2차시 (80분)

Ⅰ 수업 필요성

미디어가 학생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미디어에서 제시하는 외모 규범은 성차별적 고정관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미디어 속 비현실적이고 성적 대상화된 이미지에 노출되는 학생들은 상황이나 역할에 따른 옷차림이 아닌 미디어에서 요구하는 옷차림을 선택하게 된다. 이번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미디어가 제시하는 외모 규범이 현실과 괴리가 있음을 이해하고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역량을 기르고 상황과 역할에 따른 외모 규범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



이럴 때 활용해요!

학생들이 미디어에서 제시하는 왜곡된 이미지를 무비판적으로 따라하는 경우 등
(예) 학생들이 미디어에 나오는 연예인들처럼 보이기 위해 지나친 다이어트를 하거나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학생이 있는 경우

I 수업 내용

●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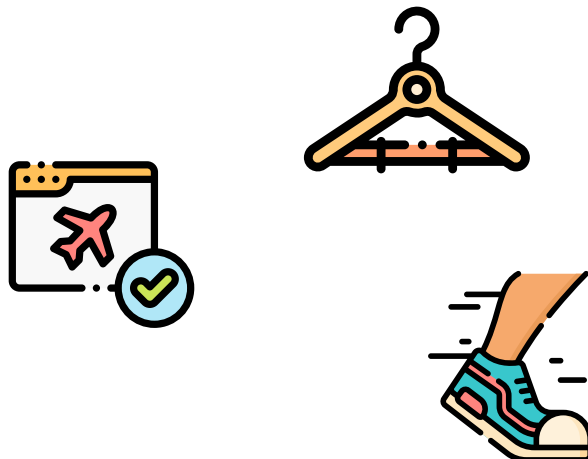
- 성 역할에 따른 외모 규범의 차이를 비판하고 상황에 따른 적절한 외모 규범을 설정할 수 있다.

● 활동

활동1	제시된 특정 상황에서 어떤 옷차림이 적절한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얘기 나누기
활동2	미디어와 현실 속 승무원의 모습을 비교하며 승무원의 직무에 어울리는 옷차림 생각해보기
활동3	미디어 속 캐릭터의 외모와 옷차림을 분석하고 캐릭터 역할에 맞는 옷차림 표현하기
더 나아가기	학습한 내용 중 기억에 남는 내용 정리 및 실천 약속 만들기

● 유의사항

- 수업 목표가 특정 직업에 대한 적절한 옷차림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가 비현실적이고 성별화된 외모 규범을 제시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목표임을 학생들이 인식하도록 지도한다.
- 미디어가 우리의 외모 규범과 성 고정관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보도록 한다.



주제별 성평등 교육 수업 활용가이드

‘교육·학교’ 편



기 획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개 발 | 원하린(부천원일초등학교 교사)
디 자 인 | 디자인스튜디오 다다름
발행년도 | 2020
발행기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